

한무숙 문학정신의 출발, 초기소설연구*

: 발굴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과 『역사는 흐른다』의 개작을 중심으로

서정자**

차례

1. 들어가며-한무숙의 초기소설들
2. 발굴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과 여성 삼대
 - 2.1. 전통적 여성 삼대의 등장
 - 2.2. 윤리적 규범의 폭력성
3. 『역사는 흐른다』 개작과 문학정신
 - 3.1. 원본과 개작본 비교
 - 3.2. 전통적 가치 충과 恨
4. 나오며-한무숙 초기소설과 문학정신

〈국문초록〉

작가의 등단작을 주목하는 것은 등단작에 작가의 문학세계 원형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은 『역사는 흐른다』보다 6년 먼저 쓰인 일어본 『灯を持つ女』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 비록 미완으로 보이는 작품이지만 5회나 연재된 작품이고 『역사는 흐른다』의 직전 작품으로 문학정신의 형성 및 출발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어본 『灯を持つ女』이 번역된다면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의 의미가 확장 보완되어 한무숙 문학세계를 풍성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병약하던 작가 한무숙이 겪은 시집살이는 전통적 조선 사대부가의 아름다움과 누적된 문체점을 뺏속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25일 열린 한무숙재단 주최 『소설가 한무숙 탄생 100주년 기념심포지엄』 기조발제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했음.

** 초당대 명예교수.

깊이 체험하게 하여 이를 소설화한 첫 작품 『등잔불 드는 여인』은 한무숙 문학정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한무숙이 체험한 시집살이는 근대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조선조의 그것으로 그려진 데다 일견 구소설의 구조를 보이나 우리 근대여성 문학사에서 처음 등장한 전통적 여성과 시집살이 문제의 소설화라는 의의가 있다. 그래서인지 한무숙의 소설들은 19세기로부터 역사라고 하는 수직적 시간을 따라 최소 삼대의 이야기를 담는 구성을 보인다.

『灯を持つ女』 등잔불 드는 여인』은 1942년 『신시대』가 모집한 장편 소설 모집에서 2등 입선한 작품으로 일어본은 2백 자 원고지 약 840장의 역작이다. 단편 위주로 전개된 우리문학사에서 흔히 않게 장편으로 등단한 작가는 희곡도 썼으나 일어로 된 이들 작품은 일실 되었고 일어본 『灯を持つ女』는 영인 공개되었으나 18년이 지났음에도 번역이 되지 않은 탓인지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그 위상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것 등 한무숙의 초기소설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은 일어본과 동명의 작품이고 내용과 비슷해서 대략적이거나 일어본과 비교를 해볼 수 있었고, 5회 연재의 길이어서 작품으로서 어느 정도 논의도 가능했다. 이 글은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에서 추출된 시집살이 모티프, 남편의 축첩 모티프, 아내의 자살 모티프, 사회운동가 모티프, 그리고 아내의 서사 모티프 중 시집살이 모티프를 주목했다. 다섯 개의 모티프 중 네 개의 모티프가 너리에 깊이 각인된 작가의 시집살이 체험이 바탕이 된 것이고 작가가 특히 주목한 조선조 사대부가의 냉혹한 시어머니상(像)은 윤리적 규범의 폭력성을 체현한 인물로 한무숙의 문학정신을 형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상으로 보였다. 『역사는 흐른다』에 다시 진지하게 그린 사대부가 주인마님 송씨부인의 일생은 작가가 전통적 여성 인물, 특히 사대부가의 시어머니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시어머니의 묘사에서 보인 돌이킬 수 없는 윤리적 폭력성과 동시에 전통여성의 아름다운 규범 등 긍정적 묘사는 전통을 살려 현대와 지양해가는 한무숙 문학정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역사는 흐른다』의 개작을 살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 송창규목사와 박옥련교장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두고 대응하는 태도에서 타협과 포용을 허락하여 주목되었다. 이는 다산의 배교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만남』의 문학정신에도 통한다.

핵심어 :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 『역사는 흐른다』개작, 시집살이 모티프, 윤리적 규범의 폭력성, 한무숙 등단작, 『灯を持つ女』, 한무숙의 초기소설, 한무숙의 문학정신

1. 들어가며-한무숙의 초기소설들

한무숙 문학 전집은 작가 생존 시에 출간되었다.¹⁾ 작가 생존 시 전집이 나오는 경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작 여부이다. 지금까지 나온 한무숙 문학연구서²⁾는 이 전집이 나온 이후에 나왔고 조남현교수의 『한무숙 소설의 갈래와 향심』³⁾ 외에는 거의 모두 전집의 작품을 텍스트로 하고 있다. 전집의 작품을 텍스트로 하더라도 원전과 비교해 보는 기본 작업을 한 번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연구자들은 이점에 비교적 소홀했던 듯하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한무숙의 삶과 문학정신’을 살피기 위해 작품들을 다시 읽는 중, 『역사는 흐른다』가 1989년 개작 출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역사는 흐른다』는 1948년 『국제신문』 장편소설 모집에 응모하여 당선한 후 1949년 『태양신문』에 연재되었고 1950년 3월 15일 백양당(白楊堂)에서 처음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초판 5천 부가 매진되어

1) 『한무숙문학전집』 전 10권, 을유문화사, 1992.

2) 한무숙재단 편, 『한무숙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96.

이호규 외 지음, 『한무숙의 문학세계』, 새미, 2000.

구명숙 외 11인 지음, 『한무숙문학의 지평』, 예림기획, 2008.

3) 조남현, 『한무숙소설의 갈래와 향심』, 『한무숙문학의 지평』 예림기획, 2008.

재판(再版)을 준비하던 중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하여 재판은 수복 후 1957년 정음사에서 발간되었다.⁴⁾ 이후 작가가 3판이자 개정판이라고 부른 자유문학사 판 『역사는 흐른다』가 1989년 나온 것이다. 작가는 이 책 ‘작가의 말’에서 “40년을 넘는 세월이 가치관을 바꾸어놓은 점도 없지 않을 것이며 당시 여건이 허락지 않아 취재가 미비했던 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40여 년 만에 ‘개정’하였음을 밝혔다. 여기서 작가는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을 다시 쓴 1989년 『역사는 흐른다』 3판은 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건이 허락지 않아 취재가 미비했던 점’을 고치는 데 주력한 것은 사실이나 개작에 준하도록 작품 후반의 상당 부분이 다시 쓰였기 때문이다. 1992년 을유문화사에서 나온 『한무숙문학전집』의 제1권 『역사는 흐른다』는 이 자유문학사 판을 저본으로 하여 출간되었다.

한무숙의 삶과 문학정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작가의 전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살펴야 옳을 것이나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다행히 작가의 초기작을 발굴할 수 있었고 이어 쓰인 초기소설 『역사는 흐른다』가 개작이 이루어진 점을 발견하여 초기소설에 나타난 문학정신의 출발을 살피게 되었다. 한무숙문학의 삶과 문학정신은 이 논고를 바탕으로 별고를 통해 깊이 있게 고찰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한무숙문학에서 초기((1942~)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작가가 처음 써서 등단한 작품이 일어로 쓰인 점이다. 한무숙의 등단작이라면 해방 후 1948년, 현상공모에서 당선한 『역사는 흐른다』를 든다. 그러나 그보다 6년 앞서 1942년 일어로 쓰인 『灯を持つ女 Tomoshibi o motsu hito □ 등잔불 드는 여인』이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⁵⁾

4)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 정음사, 1957.

5) 임미진에 의하면 한무숙의 『등불 드는 여인』은 『신시대』가 주최하고 조선문인보 국회가 후원한 현상 장편소설로 2등에 입선한 작품이다. 『신시대』에는 당선 사실만 실려 있고 작품 게재나 소개는 없다고 한다. 임미진, 「해방기 민주주의 선전과 여성해방-가정잡지 『새살림』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7집, 374쪽.

한무숙은 이외에도 조선연극협회 작품 모집에서 희곡 『마음』(1943)과 『서리꽃』(1944)이 각각 당선되기도 하였다.⁶⁾ 이 두 작품은 아직 찾지 못했으나 역시 일어로 쓰였을 것이다. 일어로 쓰였더라도 한무숙의 작품인 만큼 일단 그 위상이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는 이들 일어로 쓰인 작품들 중 『灯を持つ女』는 원고가 발견되어 2000년 복사본이 공개되었으나 번역이 되지 않은 탓인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언급도 없었던 점이다. 셋째는 한글판 『등잔불 드는 여인』의 존재다. 놀랍게도 한무숙은 일어로 쓴 『灯を持つ女』를 저본으로 하여 한글로 『등잔불 드는 여인』을 써서 해방 후에 『새살림』 잡지에 연재했다. 1947년 11, 12월 합본 호부터 1948년 7,8월 합본 호까지이다.⁷⁾ 『국제신문』 장편소설 당선작 『역사는 흐른다』 이전의 작품이니 이 『등잔불 드는 여인』은 당연히 한무숙 문학 등단작의 자리를 차지해야 옳을 것이다.⁸⁾ 일부 등장인물의 이름이 바뀌기는 했으나 『灯を持つ女』의 주요 부분을 번역한 내용이 바탕이 되어 마지막 회엔 해방 후로 시대를 연장하여 일어본의 내용을 담기도 하는 등 원본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한무숙 초기소설들은 정리가 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한무숙의 일어로 쓰인 『등잔불 드는 여인』은 향유 『등불 드는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다.⁹⁾ 그러나 한글본 소설을 읽어볼 때 ‘등잔불 드는 여인’이라야 맞을 것 같다. 이 제목이 된 장면이 등잔불을 드는 여인에게 초

6) 당선 사실 및 작품에 대해서는 미확인. 장영우, 『한무숙소설의 현실인식』, 『한무숙 문학의 지평』, 예림기획, 2008, 각주 2 참조.

7) 앞의 소설가 한무숙 탄생 100년 기념 학술대회 기초발제에서는 제4회 연재 본을 찾지 못한 채 1,2,3,5회의 소설만으로 살폈으나 이번에 4회 연재 본을 찾아 보완, 이글에서는 5회 연재 본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8) 우리 문학사에서는 한글로 쓰인 작품만을 한국문학의 범주에 넣는다.

9) 구중서, 『한무숙의 문학세계』, 한무숙재단 편, 『한무숙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96, 12쪽.

김중희, 『근대적 여성 인물의 소설적 자화상과 이중적 성격』, 『한무숙문학의 지평』, 예림기획, 2008, 61쪽

문학대담, 초대 한무숙, 대담 김옥섭, 『나의 문단 40년 회고』, 『한무숙문학연구』, 앞의 책, 337쪽 등

점이 있고 그 장면이 상당히 아름답고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읽어본 소설이 번역되어 나오면 보다 분명해 지리라 생각한다.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은 연재 중 중단되어 미완이라는 문제가 있다. 소설 연재가 왜 중단되었을까?

『새살림』은 미 군정청 보건후생부 부녀국에서 1947년 2월에 창간한 기관지인데 발행인은 부녀국장 고헥경이다. 『새살림』을 연구한 임미진에 의하면 1948년 5월 선거에서 여성을 의회로 보내려 적극 노력했음에도 선거에서 단 한 명의 여성위원을 내지 못한 ‘실패’가 잡지 『새살림』출판에 영향을 미쳐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발행인이 바뀐 다음 다시 출간되었다.¹⁰⁾ 『등잔불 드는 여인』 연재는 그러한 사유로 5회에서 중단되어야 했던 것 같다. 한무숙은 연재가 중단되자 『국제신문』이 모집하는 장편소설을 써서 『역사는 흐른다』로 당선한다. 『등잔불 드는 여인』 연재가 중단된 1948년 후반기에 『역사는 흐른다』를 썼으므로 작가로서 공백기는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일 년 후 속간된 『새살림』에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을 이어 연재하지 않은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정신이란 “인간의 심리적 육체적 감각을 지배하고 이해와 판단 등의 지적 사고를 관장하는 것이다.¹¹⁾ 문학정신의 정의를 위해 김윤식선생¹²⁾의 사상에 대한 정의를 빌려온다. 정신사나 사상사의 개념을 살피고 우리 문학사 기술이 방법론적 자각에 의해 쓰이기보다 자전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조운제의 신민족주의 사상의 창출과정 및 의의를 평가한 다음 김윤식선생은 “사상이란 문제적 상황에 대한 해답의 형식으로 제출되고 또 성립된다.”고 하였다. 문제적 상황은 위기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작가가 문학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 또는 그 문제

10) “『새살림』은 남한 정부 수립 후 박승호로 바뀌어 다시 출간되기까지 약 1년간의 공백이 있게 된다.” 임미진 앞의 논문 374쪽.

1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정신(精神, Mind, Soul, Spirit), 국학자료원, 2006. 816쪽.

12) 김윤식선생이 2018년 10월25일 별세하심을 애도하는 의미로 ‘선생’이라 존칭을 붙인다.

에 대한 해답이라 말해도 좋을 듯하다.¹³⁾

2.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과 여성 삼대

2.1. 전통적 여성 삼대의 등장

1942년 『신시대』의 장편소설 공모에서 당선해 사실상 한무숙문단 등단작이 된 『灯を持つ女』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에 활자화되지 않았고, 등단 5년이 지난 해방 후, 1947년 11, 12월부터 48년 7, 8월까지 『새살림』지에 『등잔불 드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한글로 5회 연재되어 실렸다. 그러나 이 소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가가 『灯を持つ女』의 일부분을 번역도 하고 개작도 하여 발표한 소설이다. 일어본 『灯を持つ女』의 한글본이라고 하기에는 우선 길이부터가 3분의 1 정도로 짧고 등장인물의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소설의 앞부분을 주로 살려 쓰였다. 그동안 『등잔불 드는 여인』은 일어로 쓰인 것이고 결락본이라 알려져 온 것도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 원인인 듯하다. 하지만 결락이라는 것도 불과 2, 3장 정도이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정도다.¹⁴⁾ 일어본은 400자 원고지 420여 장이어서 200자 원고지로 치면 840여 장의 장편인데¹⁵⁾,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은 『새살림』 5회 연재 분이 대략 280 여장 길이의 소설이다. 길이로 보면 중편이라 하겠으나 여성 삼대의

13) 김윤식, 『문제적 상황으로서의 사상사적 기술』, 윤대석 엮음, 『김윤식 평론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19쪽.

14) “残念なことに本書の原稿は二、三枚と思われませんが四二〇頁以降が失われています。後日発見される事を祈るばかりです。(번역) 유감스럽게도 본서의 원고는 2, 3장이라고 생각되지만, 420페이지 뒤로는 없습니다. 후일 연재가 발견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한무숙 저, 한무숙재단 편, 『灯を持つ女』, 편자 주, 420쪽.

15) 작가는 1967년 3월 『사상계』 <나의 처녀작과 그 주변> 특집에 쓴 『등불 드는 여인』에서 이 소설이 200자 원고지로 1,500장 좀 넘었다고 하였는데 작가의 말처럼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이 분명치 않았을 수 있다.

이야기로 장편소설이다. 무엇보다 『등잔불 드는 여인』은 시대적 배경이 1907년에 시작하여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다. 소설은 5회에서 더는 연재되지 않았지만 주인공 경애-등잔불 드는 여인-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더 전개할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각 장의 길이로 보건대 5회의 연재에 이어 그리 길게 쓸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먼저 발굴된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십 세기의 소리도 겨우 귀에 익게 된 1907년 어느 몹시 추운 날, 근향 근계의 대가 중에서도 제일 첫손가락 꼽히는 부호가(富豪家-필자주) 이판 서덕에서는 가을에 성례한 당주의 계수(둘째아들의 신부-필자 주) 신부례 잔치로 온 집안이 들끓고 있었다.¹⁶⁾

소설은 1907년을 명시하며 1회가 시작된다. 이 소설은 여성 삼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시어머니 박씨부인, 며느리 서영희, 그리고 손녀 경애다. 첫 장면은 며느리 서영희가 이판서덕 둘째 아들 현영에게 시집오는 혼인 잔치 장면인데 어마어마하게 호화로운 신부상과 초라한 신부 일행이 대조적으로 제시된다. 일행이라고는 교군꾼 외에 수모도 없고 한님으로 따라온 유모와 후행 한 사람뿐이다. 이 혼인은 십오 년 전에 선대감(이판서)이 서참판 집에 바둑 두러 가서 두 살 된 딸아이를 보고 며느리 삼겠다 한 약조대로 이루어졌다. 신부 쪽 집안이 몰락하고 이판서도 돌아왔지만 약조대로 혼인이 이루어진 건 선대감의 유지를 절대적으로 받드는 관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영희의 친정은 오라버니가 아편쟁이가 되는 바람에 전답도 집도 다 팔아넘겨 아버지 서참판은 상사람 죽보 꾸며주고 유모와 영희가 샅바느질을 하여 끼니를 이을 정도로 영락했다. 가난한 데다 친정어머니까지 돌아가고 없는 신부 영희는 친정의 도움을 받지 못해 시집살이가 더욱 고달프다.

16) 한무숙, 『등잔불 드는 여인』, 제1회, 『새살림』 7호(1947.11.12. 합본호), 군정청 보건 후생부 부녀국 발행, 67쪽.

시어머니 박씨부인은 혼인날 삼십 년 써오던 손거울을 깨뜨려 사위가 심한 그는 그것이 큰 불길(不吉)을 예고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벼락으로 일어난 산사태에 변사하는 사건이 나고 무당은 ‘뜰은삼재 든삼재’ 때문이라고 한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그게 바로 새 며느리 영희라고 단정을 한다. 영희는 시어머니와 동서, 옥분의 모의로 시어머니가 죽도록 방각씨를 만들어 굴뚝 속에 넣었다는 모함에 휩싸인다. 증거는 방각씨에 영희의 귀이개가 꽂혀있다는 것이었고 결국 며느리 영희는 쫓겨난다.

신랑 이현영은 친구학문을 갖추 받은 ‘깎은선비’다. 아내에게 전문학교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서울로 살림을 내달라 여쭙겠다고 약속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현영은 허숙집 딸 연옥의 유혹에 넘어가 서울에서 살림을 차린다.

2대 여성 영희가 딸 경애를 데리고 서울로 와 남편을 찾아갔을 때 문을 연 어머으로부터 마침 연옥이 현영의 아이를 순산했다는 말을 듣는다. 영희는 그대로 돌아서서 남의 집 침모로 들어간다. 딸 경애가 침모의 딸이라 천대받는 것을 본 영희는 눈 질끈 감고 경애를 유모에게 부탁해 아버지 현영의 집으로 보낸다. 영희는 시집살이의 고난과 남편의 첩 치가의 배신을 삼중지도 칠거지악의 전통적 여성윤리를 따라 다만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딸까지 아버지에게 보내는 자기 포기의 선택을 한 다음,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다. 작가는 1대와 2대의 여성의 삶을 전통적 윤리에 철저한 모습으로 그렸다. 3대인 경애의 삶에 이르러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까다로운 할머니의 뜻을 잘 받들려 노력할 뿐 아니라 대대 잠영세족인 집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등 얼핏 보기에는 3대의 경애도 그 할머니나 어머니 영희의 삶과 다름없게 보이나 같은 세대의 화가 안광호나 의사인 큰덕 오빠 경훈, 신여성 광자와 경자의 등장은 3대 경애의 삶이 앞의 두 세대와는 다르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주목되는 것은 2대 영희의 시집살이를 통해 보인 작가의 비판의식인데 그럼에도 3대 경애를 통해서 보이는 조선 전통에의 애정과 지향이다. 선달 그믐날 온 집안 새해맞이 대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자 온 집안에 불을 켜러 다니는 등 조선 전통풍속의 재현은 근대소설에서 처음 만나는 이름

다운 장면이다.

그가 사랑에 불을 키러(원문대로 □ 필자주) 가느라고 안마당을 나와 중문까지 이르렀을 때 문밖에 인기척이 났다. 그는 놀라서 발길을 멈추고(원문대로 □ 필자주) 소리를 쳤다.

“누구세요?”

한 청년의 얼굴이 경애가 든 불빛을 바루 받으며 나타났다.

“경훈씨를 뵈오려 왔습니다. 안광호라구 합니다.”

그는 쏘는 듯이 긴치마에 싸인 날씬한 몸을 손에 든 등잔불의 빛에 비쳐 어둠 속에서 뚜렷이 떠오른 얼굴을, 신비스럽게 떨어트린 긴 속눈썹을 가진 눈매를 말없이 본다. 이윽고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¹⁷⁾

소설의 마지막 단락인데 소설 제목이 된 장면으로 경애가 등잔불 든 여인임을 알려준다. 제목이 『등불 드는 여인』이라면 이 단락에서 느껴지는 전통적인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경훈이를 만나러 와서 등잔불에 비친 경애의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아 친구를 만나지 않고 돌아서 가는 화가 안광호의 내면이 등잔불처럼 비쳐오는 문장이다. 경애는 사대부가 우리 풍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듯하다. 작가는 전통 속의 고식적인 인물은 비판하되 전통적 삶과 언어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2.2. 윤리적 규범의 폭력성

한무숙이 『새살림』에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을 연재한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여성 삼대의 이야기에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 일어로 썼던 『등잔불 드는 여인』을 다시 써서 작품을 살려보려고 했을

17) 한무숙, 『등잔불 드는 여인』, 『새살림』, 9호, 군정청 보건후생부 부너국, 1948.8.

까? 미완의 한글본 『등잔불을 드는 여인』이 속간된 『새살림』에 계속 이어 연재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그 열쇠는 일어본 작품에 있을 듯하다. 일어 본에는 안광호를 비롯한 화가들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나온다. 일어본이 번역되어 나온다면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의 연재 중단의 이유를 밝혀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연재가 중단되어 『등잔불을 드는 여인』이 미완인 상황에서 『역사는 흐른다』는 쓰였다. 이 소설 역시 삼대의 이야기로 『등잔불을 드는 여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다행이다.

줄거리에서 대략 살펴보았듯이 『등잔불 드는 여인』의 모티프는 『역사는 흐른다』에 상당 부분 재연되고 있어서 자못 흥미롭다. 『등잔불 드는 여인』은 그런 점에서 한무숙문학의 출발점이자 등단작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 소설에서 추출해 본 모티프는 대략 다섯 개다. 첫째 시집살이 모티프. 작가가 첫 소설에서 시집살이를 문제 삼은 점이다. 실로 진부한 이 제재를 첫 작품에서 쓰고 있는 것, 그것도 도입부로 쓰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무숙의 삶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무숙은 신혼부터 대가족의 며느리로서 무척 힘들게 살았다고 한다. 가슴에 가득 찬 생각이 소설로 나왔다고 본다면 시집살이 이야기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¹⁸⁾ 이 소설의 시어머니와 영희의 동서인 두 박씨부인은 『역사는 흐른다』의 송씨부인을 연상하게 한다. 작가는 『등잔불 드는 여인』에서 등장시킨 여성들의 삶을 『역사는 흐른다』에서 그 세부에 집중하여 그려냈다. 그 중 전통적 유교교육에 굳어진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양반가 시어머니상은 윤리적 폭력의 상징

18) 수필에 쓰인 작가 한무숙의 체험이 소설과 그대로 일치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한 예를 들면 1967년 3월 『사상계』의 수필 「등불 드는 여인」에서 한무숙은 조선조 시대에서 한 걸음도 나와 있지 않은 시택에서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개화된 가정에서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에도 가지 않을 만큼 색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 생활의 '돌변'에서 오는 '타격'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던 중 현상소설 모집 광고를 보았다는 것이다. 연필로 칸을 치고 연필로 쓴 소설이 『등불 드는 여인』이었다. 시집살이로 가슴에 가득했던 '말'이 쏟아져 나온 것이 『등불 드는 여인』이었다고 했다. 82쪽.

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윤리적 폭력 비판』에서 아도르노의 동일성 비판에 기초한 집단적 에토스, 즉 집단의 윤리적 규범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한 개인이 그것에 따르지 않고 위배 되는 행동을 할 때 집단적 권력은 그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억압’하는 쪽을 택한다고 말한다.(중략) 이처럼 윤리적 규범은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보편성으로 전락하는 순간 폭력이 된다.¹⁹⁾ 이 냉혹한 시어머니의 인물상은 한무숙의 인격 형성이나 문학정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이 시집살이 체험을 ‘돌변’한 환경, ‘타격’이라는 말로 표현했다(수필 『등불 드는 여인』).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극단적으로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게 되는 그 일단이 이 시기 삶의 체험에서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고 본다. 한무숙은 개화된 집안에서 스스로를 섬바디라 생각하며 성장했으나 완고한 유풍이 뿌리 깊은 시집에서는 자신이 똥 친 막대기 또는 노바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고 한다.²⁰⁾ 출중한 미모의 주인공 영희, 전통적 사고에 갇힌 시어머니 박씨, 사위가 심한 시어머니, 며느리를 모함해서 내쫓는 방식의 온존, 1회부터 3회까지 등장하는 여성인물 중에 한 사람도 전통적 구습을 깨뜨려 자아 각성에 나서려는 인물이 없다는 점도 작가의 체험에서 나온 결론 같다. 오로지 순종하다가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기도한다는 점에서 1, 2세대에서 작가는 아무런 비전을 보고 있지 않다. 3회까지의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여성의 시집살이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에서 시작된 한국 근대여성소설을 일별해보아도 여주인공의 시집살이가 주제가 된 소설은 거의 없다. 나혜석의 미완 소설 『규원』(1921 『신가정』)이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규원』의 시어머니와의

19) 이현재, 『인간의 자기한계 인식과 여성주의적 인정의 윤리』, 『한국여성학』, 23, 한국여성학회, 2007.

20) 장영우, 『한무숙소설의 현실의식』, 『한무숙문학의 지평』, 앞의 책, 218쪽. 재인용. 한무숙은 자신의 시집살이를 “행복에의 의지라든가 희망같은 것은 아예 없는 고단한 신역 속에서 철저히 내 불행을 완성 시키기 위하여 자학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냉소적인 역설의 독이 가득찬 처절한 삶을 살았다고 회상하였다.”

갈등도 며느리에 대한 오해(배신) 때문이지 시집살이 때문이 아니다. 1917년 근대여성소설의 등장 이후 25년, 『인현왕후전』에서나 나오는 방각씨 무고 방식이나 무당이 등장해 며느리가 끝내 쫓겨나는 등 구소설의 진부한 이야기 등장은 근대여성소설사의 뜻밖이자 실로 새로운(?) 주제이다. 당시 여성 작가들은 구소설의 스타일을 진작 벗어 던졌고 소설의 주인공은 거의 모두라 할 정도로 신여성이었다. 한무숙은 결혼 전 17세의 어린 나이에 김말봉의 『동아일보』 연재소설 『밀림』에 삽화를 그렸다. 한무숙은 따라서 당시 여성소설의 경향을 대략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근대소설을 몰라서 구소설 같은 시집살이 이야기를 쓰진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작가 한무숙에게는 시집살이와 구여성들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문제적이라고 보았다고 본다. 이러한 고식적 사건과 전개가 한무숙의 삶, 곧 체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전통적 여성상은 『역사는 흐른다』에 송씨부인으로 다시 그려진다. 한무숙은 송씨부인 같은 냉혹함, ‘변하지 않는 윤리 규범’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살필 것이다. 둘째 남편의 축첩 모티프 아내를 무시하고 신여성과 살림을 차리는 데 아무런 주저가 보이지 않는다. 이 모티프는 단편 『수국』 등에까지 이어진다. 셋째, 첫째와 둘째 모티프에 이어지지만, 아내의 무저항 내지 자살 모티프 주인공 여성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항하는 대신 자기를 죽이는 쪽을 택한다. 이는 한무숙소설에서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단초가 된다. 김중회교수는 이를 “개별적 주체로서의 인식은 분명 하지만 그 주체가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적 자아를 확립하는 지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양태, 그러한 양가적 존재 방식이 한무숙 여성 인물들의 의식을 완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²¹⁾ 넷째 승관이 같은 운동가 모티프다. 일제 식민지시기에는 비밀결사에 가입하여 관현의 눈을 피하는 운동가였고 해방 후에는 정역군(전과자)들과 땅을 일구어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등의 운동가 모티프는 그의 작품마다 등장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 모티프는

21) 김중회, 『근대적 여성인물의 소설적 자화상과 이중적 성격』, 앞의 논문 67쪽.

『역사는 흐른다』에서 이규직의 교육운동, 배선명의 장학사업 등으로 이어진다. 다섯째 아내의 서사 모티프다. 한국여성소설의 흐름을 볼 때 30년대엔 사랑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는 신여성이 사랑 없는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엘렌케이 신봉자 작가 그룹이 주류였다. 40년대엔 임옥인 지하련 소설에서 아내의 서사가 등장한다. 한무숙도 아내의 서사를 쓴다. 이 다섯 모티프에서 첫째 시집살이 모티프와 둘째 축첩모티프, 그리고 셋째 무저항 순종형의 여성모티프 넷째 아내의 서사 모티프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다섯 모티프에서 네 개의 모티프가 전통적 여성의 삶과 연계되어 있어 전통적 여성의 삶의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경애에서 보듯 전통수호의 이미지를 보이는 데서 작가 한무숙의 전통지향성을 읽을 수 있다. 유교적 전통이 뿌리 깊은 한국에서 한무숙같은 기존 윤리를 존중하는 작가가 등장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자 바람직하다. 누구보다도 신여성의 등장과 그 의식을 잘 알았을 한무숙이 시집살이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의식을 바꾸었을 리 없다. 인물의 성격이 전형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현영의 첩 연옥에서 보듯이 신여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것이 작가 한무숙이었다고 볼 때 시집살이 모티프는 전통적 시집살이의 비판과 하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변증적 지양을 시도했다고 읽는 것이 옳을 것이다. 페미니즘의식 소멸의 신호탄이었다고 할까. 경애뿐만 아니라 경훈의 아내 은히도 철저한 전통적 윤리를 존중하는 아내이다. 본고는 한무숙의 시집살이 모티프에서 윤리적 규범의 폭력성을 주목하고 『역사는 흐른다』의 개작을 살펴본다.

3. 『역사는 흐른다』 개작과 문학정신

3.1. 원본과 개작본의 비교

한무숙의 『등잔불을 드는 여인』에서부터 미국인이 등장하는 점은 이채

롭다. 미국인은 『등잔불을 드는 여인』에서 『역사는 흐른다』에까지 구원의 표상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미국인은 일제 말 한국 내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고 중국에서도 추방되었다. 전쟁 중이었고 적국의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살하는 영희를 구해준 것이 외국인 선교단의 의사였다든가 경훈이 해방 후 귀국을 미루고 중국에서 동포를 치료해 주던 병원도 미국인의 병원이었으며 원장도 미국인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 일제 말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이 소설 공간으로 등장하는 것은 『역사는 흐른다』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흐른다』 개작의 가장 큰 계기는 바로 미국과 관련이 있다. 이 개작은 앞서 제시했듯이 1989년에 이루어졌다. 40여 년 만에 이 소설을 개작하게 된 계기는 KBS 1TV에서 대하드라마로 방송이 되면서였다. 드라마와 원작소설독후감 현상모집 기간이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걸 보면 드라마가 그 이전에 방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사는 흐른다』의 원본과 개작본을 비교해 본다. 『태양신문』 연재본과 대조해야 옳겠으나 신문을 미처 찾지 못했다. 1950년 3월 백양당 초판 역시 소재를 알 수 없어 1959년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 29권 판을 원전에 가깝다고 보고 22) 개작본과 대조해 보았다.

우선 체제와 문장 및 자구수정. 『역사는 흐른다』는 원본에서 각 장을 숫자로 표시한 데 반해 개작본에서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각 장에 제목을 붙였다. 제1부의 경우 자구수정이 주로 이루어진다. 당시의 습관에 따랐으리라 보이는 과장된 표현을 합리적 언어로 고쳤다. 눈에 띄는 것은 종지를 현재형에서 과거형 ‘이었다’ 로, 또 ‘~것이다’ 로 고친 것이다. ‘물장수’가 ‘물장사’로, ‘가정주부’를 ‘아낙’, 또는 ‘염집 아낙’으로 고치기도 했다. 여성의 삼인칭을 ‘그’라고 썼던 것을 ‘그녀’로 바꾸기도 했다. 그동안 의문이었던 조동준의 소속이 의성군수로 통일되었다. 동학군을 만나

22) 조남현교수도 이 민중서관판을 텍스트로 하고 있다. 민중서관 판의 한무숙연보에는 1949년 『역사는 흐른다』 출간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자유문학사 판의 작가의 말에서 한무숙은 백양당에서 1950년 3월 15일에 발간했다고 했다.

죽임을 당할 때 장흥군수로 표기되었으나 소설의 다른 곳에서 의성군수로 표기하여 혼선이 있었다.

제2부는 원본을 바탕으로, 추가하고 고쳐 쓴 부분이 많아 찬찬히 볼 필요가 있다. 원본에서 전목사로 나오던 인물이 송창규목사로 바뀌어 나오며, 일제의 만행이 전경 화하여 부각된다. 이를테면 삼대 감혜와 조남창 성재경의 등장과 만남을 야외 소풍을 배경으로 그린 것을 빼고, 성재경이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열차의 풍경이 보완된다. 정신대로 끌려가는 걸 피하려 결혼했다가 어린 엄마가 되어 시달리는 이야기가 추가된다. 임신한 채 앓는 아이가 보채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남편마저 학병으로 끌려나간 피해자 여성이다. 일제 말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일제식민지 암흑의 현상이 집약된 만원 열차 풍경이다. 열차 밖의 풍경으로 배급양식의 질이 형편없고 양도 적어 시골에서 쌀을 사 오다 뺏긴다든지, 역마다 학병을 환송하는 만세 소리와 만원 되어 열차를 타지 못하는 소요 등이 그 위에 겹쳐진다. 개작에서 정신대의 이야기를 추가한 점은 역시 작가의 역사의식을 보여준 점이라 하겠다. 이때까지도 정신대는 아직 공론화되지 않아서 소설에 등장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러한 ‘징용선봉’ 장을 제2부 1장으로 하고, 이어 2장을 ‘송창규박사’ 장으로 하여 예상했던 대로 작가가 태평양 전쟁 시기에 미국행을 하는 원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박옥련 이온녀의 도미를 극비리에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연말 이래 이미 미국과 일본은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는 중이라 그런 시기에 조선인의 미국유학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온녀라는 이 여학생은 그 난관을 뚫고 유학과 도미 수속절차가 끝나 있다는 것이었다. 미·일간에 전쟁이 발발되자 모든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되고 교인의 뒷배를 성실히 돌보아주던 선교사들도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온녀의 경우는 믿어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온녀 역시 송목사의 두호를 받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재원이다. 경성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동경여의전을 나와 앞으로 더 높은 교육을 받고자 도미하려는

것이였다.(밑줄 인용자)²³⁾

박옥련교장이 이온녀와 도미하는 대목은 배선명과 만나 박옥련교장이 된 금년이 자신의 예전 신분을 고백하고 은인 이규직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말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어서 뺄 수는 없는 터이므로 이 미국행 장면은 작가가 상당히 고심하여 수정한 듯이 보인다. 석 달가량 박옥련교장이 기억을 잃고 산골 절간에서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머문 것으로 설정하여 비밀공작처럼 미국에 다녀오게 한 것이다. 또한, 박옥련교장이 그 엄혹한 전쟁 상황을 뚫고 도미하는 만큼 도미해야 할 필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작가는 배선명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오른팔인 미국 상원의원이 고향인 이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예술품을 수집하여 잘 전시한 배선명의 집에 들르게 초청한다. 이때 아름답고 고상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역사학을 전공한 박옥련이 세계정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압박받는 실정도 알리고 한국문화를 가장 잘 소개할 인물로 보아 배선명이 일부러 초청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원본의 전창규목사는 송창규목사로 이름이 바뀌어 등장한다. 송창규목사의 역할은 전창규목사가 하던 역할-배선명이 하는 육영사업에 조선 학생을 선발해 돕는-을 계속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의 억압에 송창규목사의 대응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장(章)의 제목으로 송창규박사를 내세울 만큼 이 장은 작가의 어떤 의도를 보이기 위해 쓰였다고 보인다.²⁴⁾ 작가는 왜 굳이 이 신사참배문제를 썼는가? 일제 암흑기 미션스쿨계통의 학교를 운영하는 박옥련교장이나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기독교교회의 목사는 다 같이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성재경의 귀국환영과 이온녀의 도미 환송을 위해 송목사의 교회에서 성재경 조남창 등 오륙 인의 청년들과 박옥련은 비밀모임을 갖는다. 젊은

23)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 『한무숙문학전집』1, 을유문화사, 1992, 204쪽.

24) 이 대목에서 송목사를 여류작가 김수봉여사가 평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김수봉여사는 작가김말봉일 듯 하며 송목사는 실제인물로 작가 김말봉의 지인인 듯하다.

이들은 신사참배문제로 몇몇 목사가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신사참배 강요를 어찌해야 하느냐 호소한다. 이때 박옥련교장은 송목사에게 의논을 한다.

우리 학교는 미션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성경 강의를 맡고 있는 미션학교의 교장인 제가 학생들보고 신사 앞에 나가 절을 하라고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학생들이 자꾸만 고초를 겪고 희생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요.²⁵⁾

이에 대해 송창규목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해 해안 모래 산꼭대기에서 로마의 대군과 몇 해를 맞서서 싸우다가 마침내 물밑 듯 밀려들어 오는 적을 앞에 하매 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하여 로마군이 노획한 것은 적군이 아니고 적군의 시체들이었지요. 그런 항거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체절명인 경우의 절망적인 포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보다 큰 것, 더욱 높은 것을 목표로야 합니다. 결코 타협이 아니고 항복은 더더욱 아니죠. 이 경우 고개를 숙이는 것은 더욱더 높이 고개를 쳐들기 위한 전초 동작입니다. 마치 원반던지기를 할 때 앞으로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원동력을 여투기 위하여 앞으로 던지기에 앞서 우선 뒤로 팔과 몸을 젖히는 원리입니다. 마음으로 단호하게 거부할 때 고개를 약간 숙이는 시늉을 하는 것은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²⁶⁾

말을 마친 송목사의 이마에 땀 구슬이 송송 맺혔다고 작가는 썼다. 조선인이라면, 성직자라면 결코 입에 올릴 수 없고 결코 올려서는 안 되는

25)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 자유문학사, 앞의 책, 217쪽.

26) 위의 책, 217-218쪽.

말을 그는 했다고도 썼다. 그리고 이날의 송목사의 발언은 교인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쓴 다음, 송박사는 변절한 것인가? 분위기가 불온하게 수련수련하였으며 그 술렁거림이 가라앉기도 전 어느 날 송목사는 갑자기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구인되어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²⁷⁾고 했다.

송창규박사의 장은 작가 한무숙의 문학정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든다. 신사참배 문제로 순교자가 나왔단가가 어느 정도 억압이 진행되고 있다 등의 정보가 나왔던 것도 아니다. 박옥련이 미국의 배선명과 대화하는 중에 조석구장군의 분투를 전하는 배선명에게 교장으로서는 일체에 타협한 자신을 반성하는 말을 한 정도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여지껏 소극적, 노골하게 말하면 비겁했다는 것입니다. 폐교를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당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전전공공해온 게 사실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²⁸⁾ 이에 대하여 배선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만에 정신만 잊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탄압 아래 학원을 계속해 나가시려는 수단이셨지 아주 굴복하거나 찬동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²⁹⁾

송창규목사와 박옥련교장의 일체의 신사참배 강요와 종교탄압에 대처하는 자세를 쓴 이 대목은 『역사는 흐른다』의 주인공 이규직일가의 순절 충절과는 대조적이다. 대일항쟁에 쓰러진 참관 이현종의 아들 규혁은 신민회의 일원으로서 해아의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위중 이상설 등과 황제의 밀지를 가지고 가려다 붙잡혀 희생되었고, 규직 역시 교육을 통해 구국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의 앞잡이가 된 처남 조용구의 밀고로 제자

27) 한무숙, 위의 책, 219쪽.

28) 위의 책, 263쪽.

29) 위의 책, 같은 곳.

들과 함께 수난을 겪은 인물이다. 그 어머니 김씨 부인도 고문받는 아들을 정면으로 지켜보며 “내 아들 장하다고 칭찬해주마. 나는 외면도 않고 네 고통을 지켜보겠다. 내가 내 마음 아픈 것을 꺼려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거든. 네 고통을 보고 나도 같이 아파하고 뜨거워하겠다.” 하며 아들의 악형 받는 모양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보다가 마침내 기절해 쓰러졌다.³⁰⁾ 어머니의 강직한 자세에 놀랐는지 규직은 석방되고 동지 이동국의 권고로 중국으로 망명길을 떠난다. 그러다 잠깐 귀국한 규직은 처남 용구의 밀고로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애국충절의 인물이 일제의 탄압에 대응하는 자세는 송목사나 배선명이 말하는 ‘마음이나’ ‘정신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규혁이나 규직 그리고 그 어머니 김씨 부인의 울곧은 기개는 송씨 부인과 또 다르다고 작가는 보고 있다. 인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윤리 규범의 화신 송씨부인과 달리 김씨부인과 그 아들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직과 조완구의 딸 갑혜는 유복녀이다. 학교에서 신사참배는 매월 초하루 보름에 있었다. 갑혜는 급장이면서도 신사참배가 있는 날은 학교를 결석하곤 한다. 할아버지 이참판과 큰아버지 규혁과 아버지 규직의 핏줄을 이은 갑혜답게 어머니 몰래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일제에 저항한다. 이 소설이 1대 조동준, 2대 조병구 용구 석구 완구와 3대 남창, 루미, 갑혜의 삼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루었지만 조남현교수가 주인공은 이규직이라 보았던 것처럼 갑혜의 이러한 신사참배 거부는 충직한 조선조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여기에 조동준의 고충(孤忠)이 이어진다 하겠다.

동학혁명이 일어나 들불 붓듯 퍼져나가는 기세로 북을 향하여 가차 없이 무

30) 위의 책, 163쪽.

찌른 사람들 중에는 성격이 둔탁하고 무도한 탐관오리들, 목숨을 위해서는 환부역조(換父易祖)라도 할 겁나(怯懦)한 위인들이 태반이었으나 그중에 인격이 고결하고 비록 미란부패(糜爛腐敗)의 극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조오백년의 종사를 위하여 고충(孤忠)을 지킨 자가 있었으니 의성군수 조동준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³¹⁾

3.2. 전통적 가치 충(忠)과 서(恕)

그렇다면 가슴만으로 소신을 지키고 행동으로는 타협하는 송목사나 배선명의 논리에 모순은 없는가? 작가는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는 목사의 이야기 대신 송창규목사의 논리를 가져왔는가? 이 대목에서 한무숙의 장편소설 『만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남현 교수는 천주교를 배교한 것으로 되어있는 정다산을 작가는 독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정약종과 정하상 쪽으로 잡아당겼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한무숙은 다산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 중국 신부 앞에서 고명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려놓으면서 『만남』의 창작 의도는 다 이루었노라고 자부했을 지도 모른다고.³²⁾ 송창규박사라 제목으로까지 내세우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면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고 말하는 작가는 다산의 배교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천주교의 교리가 허락한 논리일 수는 있으나 작가의 문학정신으로 설명해보고자 할 때 독자는 이에서 상식적, 또는 타협이라는 문자를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서 앞의 등단작 『등잔불 드는 여인』의 시집살이 모티프 즉 시어머니의 묘사에서 보인 윤리적 규범의 폭력성을 비판한 한무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시집살이에서 절실히 느껴 본 윤리적 규범의 폭력은 그의 문학정신에 깊이 각인 되어, 『역사는 흐른다』를 개작하며 일부러 송창규박사 장을

31)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 자유문학사, 1989, 44쪽.

32) 조남현, 『한무숙소설의 갈래와 형식』, 『한무숙문학의 지평』, 앞의 책, 36쪽.

독립시키면서까지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천주교박해로 많은 이가 희생되었듯이 신사참배로 희생되는 것도 윤리적 폭력의 문제라고 작가는 본 것이다.

여기서 잠시 『역사는 흐른다』에 그려진 송씨부인의 일생을 일별해본다. 작가는 놀랍게도 등장인물 중 그 누구보다도 송씨부인을 자세하게 그렸다. 마치 『등잔불 드는 여인』의 시어머니 박씨부인을 보다 자세히 그려놓을 작정을 한 듯이, 『역사는 흐른다』의 등장인물 중에 송씨부인처럼 운명하기까지 전 생애를 추적하여 그려놓은 인물이 없다. 송씨부인은 의성군수 조동준의 부인으로 병구와 용구를 낳은 다음 의성에 와서 딸 완구를 낳는다. 부용은 그 어미와 함께 이 이씨의 종살이를 하는 천민인데 양인 영쇠와 맺어질 즈음 조동준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딸을 낳는다. 그의 삶은 송씨부인이 부용 보다 서너 달 후에 딸 완구를 낳으면서 더욱 비참하게 된다. 자신의 딸 금년에게 줄 짓을 완구에게 먹이게 된 것이다. 이때 송씨부인의 태도는 냉혹 바로 그것이다. 짓을 주지 못하게 밤에도 완구를 데리고 자게 하고 행랑에 내려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금년은 마당에서 흙 강아지가 되게 하고 종내에는 어미와 딸이 보지 못하게 가둬버리는 몰인정한 행동을 거침없이 보인다. 이런 송씨부인은 남편이 비명에 가자 유교적 법도에 맞게 감정을 절제한다. 아이를 낳을 때도 ‘매독스럽게’ 앓는 소리 하나 없이 고통을 참고 사람들을 대청으로 쫓은 후 단지 혼자서 여아를 분만했던 그다.

동학군은 조동준 군수에게 군기고 열쇠를 내놓으라 협박을 한다. 연이든 협박에도 굴하지 않자 동학군의 칼이 형을 호위하던 동원의 뒷덜미를 무찌르고 다시 조동준군수의 머리위에 떨어지니 영혼은 삼십삼 세를 일기로 영원히 떠나고 만다. 형제의 장렬이 선달 스무날 아침 한성으로 향할 때 그믐달같이 처연한 송씨부인은 깃옷에 중단을 입고 단정한 태도로 가마 속에 앉아 곡기를 끊은 지 오래였다고했다. 고을마다 들러 체에 참여하며 가는 중에 서울에서 주변사와 초토사가 동학을 토벌하러 내려갔다는 말을 들은 다음 날 아침에야 송씨부인은 곡기를 한다. 조동준의 고

충(孤忠)은 긍정적으로 읽히나 인간미 없는 송씨부인의 독한 열(烈)의식은 대조적으로 야박하게 느껴진다. 조씨가 2대 병구가 장가를 들었으나 며느리와 합방하는 것을 병 조리시킨다는 핑계로 거운 한 달이나 아내 방에 못 들게 한다든가, 꼭 쌀을 흠되로 되어주고 며느리 윤씨가 데려온 교전비의 양식을 치지 않아 대갓집으로 시집와서 배를 곯게 하는 전형적인 못된 시어머니가 주인마님 송씨부인이었다. 그보다 기막힌 것은 동서인 동원의 과수부인 박씨에게 아무런 권리도 자유도 줌이 없이 종보다도 약간 격이 위인 식객에 불과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한 것이다.

유교적 규범을 일관지하여 충과 서로 본 논어의 윤리에 견준다면 송씨부인의 경우엔 충이나 열(烈)의 인물이기는 하나 서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까. 서(恕)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르는 이 말, 즉 추기급인(推己及人), 자기 성찰로 타인에게 미치는 마음을 이르는데 조선조 유교교육을 받아 윤리 규범에 철저한 송씨부인이었지만 양반이라는 계급의식에 함몰되어 시대의 변화에는 무지했다. 하여 친일파 둘째아들 용구가 교육열사 사위 규직을 죽게 한 공로로 경시로 승진, 영감이 된 것을 좋아하고 함흥지사로 승진한 것을 자랑스레 여긴다.

송씨부인의 마지막은 역시 그답게 특별했다. 해방되고 병구가 먼저 서울로 가고 송씨부인은 염서방과 복돌어머니 모시고 월남하는데 조그만 퀘짜에 바퀴를 달아 송씨부인을 태우고 포천을 떠났으나 경계선 험한 산을 넘을 때 깎은 듯한 비탈에서 퀘짜가 내리구를 염려가 있어 염서방이 엮어서 넘으려는 것을 망측하다고 한사코 거절하고 구십이 가까운 노인이 기어서 산을 넘었다. 그러나 경계선을 넘자 맥을 놓아 그랬는지 동두천 잠깐 못미처 어느 농가에서 운명하고 말았다. “최후까지 사대부가 부인의 범절을 지킨 매독스럽고도 단정한 부인이었다.”³³⁾ 송씨부인은 매독스러운 비정의 인간이면서 한편 조선조 사대부가의 귀부인으로서 윤리적

33) 한무숙, 위의 책, 349쪽.

규범을 체현한 부정과 긍정, 이중적 성격의 여성인물이다.

이 점은 한무숙 문학정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윤리적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신념이 송창규목사와 다산의 행동철학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종교도 사상도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마사다요새의 비극은 절체절명, 절망적인 포기이며 이것이 곧 최선은 아니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정신이 작가로 하여금 전통의 고루함을 비판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우리 문학사에 남기게 된다.

4. 나오며-한무숙 초기소설과 문학정신

작가의 등단작을 주목하는 것은 등단작에 작가의 문학세계의 원형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은 『역사는 흐른다』보다 6년 먼저 쓰인 일러본 『灯を持つ女』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 비록 미완으로 보이는 작품이지만 5회나 연재된 작품이고 『역사는 흐른다』의 직전작품으로 문학정신의 형성 및 출발을 살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러본 『灯を持つ女』가 번역된다면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의 의미가 확장 보완되어 한무숙 문학세계를 풍성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병약하던 작가 한무숙이 겪은 시집살이는 전통적 조선 사대부가의 아름다움과 누적된 문체점을 뺏속 깊이 체험하게 하여 이를 소설화한 첫 작품 『등잔불 드는 여인』은 한무숙 문학정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체의식을 담고 있다. 한무숙이 체험한 시집살이는 근대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조선 조의 그것으로 그려진 데다 일견 구소설의 구조를 보이나 우리 여성문학사에서 처음 등장한 전통적 여성과 시집살이 문체의 소설화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한무숙의 소설들은 19세기로부터 역사라고 하는 수직적 시간을 따라 최소 삼대의 이야기를 담는 구성을 보

인다.

『등잔불 드는 여인』은 1942년 『신시대』가 모집한 장편소설 모집에서 2등 입선한 작품으로 일어본은 2백 자 원고지 약 840장의 역작이다. 단편 위주로 전개된 우리문학사에서 흔치 않게 장편으로 등단한 작가는 희곡도 썼으나 일어로 된 이들 작품은 일실 되었고 일어본 『『灯を持つ女』』는 영인 공개되었으나 18년이 지났음에도 번역이 되지 않은 탓인지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그 위상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것 등 한무숙의 초기소설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으로 대략적이거나 일어본과 비교를 해볼 수 있었고, 5회 연재의 길이여서 작품으로서 어느 정도 논의도 가능했다. 이 글은 한글본 『등잔불 드는 여인』에서 추출된 시집살이 모티프, 남편의 축첩 모티프, 아내의 자살 모티프, 사회운동가 모티프, 그리고 아내의 서사 모티프 중 시집살이 모티프를 주목했다. 다섯 개의 모티프 중 네 개의 모티프가 뇌리에 깊이 각인된 작가의 시집살이 체험이 바탕이 된 것이고 작가가 특히 주목한 조선조 사대부가의 냉혹한 시어머니상(像)은 윤리적 규범의 폭력성을 체현한 인물로 한무숙의 문학정신을 형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상으로 보였다. 『역사는 흐른다』에 다시 진지하게 그린 사대부가 주인마님 송씨부인의 일생은 작가가 전통적 여성 인물, 특히 사대부가의 시어머니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시어머니의 묘사에서 보인 돌이킬 수 없는 윤리적 폭력성과 동시에 전통여성의 아름다운 규범 등 긍정적 묘사는 전통을 살려 현대와 지양해가는 한무숙 문학정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역사는 흐른다』의 개작을 살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 송창규목사와 박옥련교장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두고 대응하는 태도에서 타협과 포용을 허락하여 주목되었다. 이는 다산의 배교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만남』의 문학정신에도 통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구명숙 김진희 송경란 편 『한국여성문학자료집』⑥ 한국여성작가 작품목록, 역락, 2013.
- 한무숙 소설집 『월운』 정음사 1956.
-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 민중서관 1959.
- 한무숙 『등불 드는 여인』, 『사상계』 1967년 3월, 80쪽~82쪽
- 『신한국문학전집』 8권 어문각 1974.
- 한무숙 『빛의 계단』 삼성신서 26, 1975.
- 한무숙 『만남』 상 하 정음사 1986.
-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 자유문학사 1989
- 『한무숙문학전집』 전 10권, 을유문화사, 1992.
- 한무숙 저, 한무숙재단 편, 『灯を持つ女』, 영인본. 2000
- 『새살림』 1947-1948. 『아단문고 미공개자료총서』 34권. 2014
- 『새살림』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2. 단행본

- 구명숙외 11인 지음, 『한무숙문학의 지평』, 예림기획, 2008, 96-120쪽
- 김윤식 저 윤대석 편, 『김윤식평론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1-26쪽.
- 이호규 외 지음, 『한무숙의 문학세계』, 새미, 2000, 23-46쪽.
- 한무숙재단 편, 『한무숙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96, 101-169쪽.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816쪽.

3. 논문

- 구중서, 『한무숙의 문학세계』, 한무숙재단 편, 『한무숙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96, 11-31쪽.
- 김중희, 『근대적 여성인물의 소설적 자화상과 이중적 성격』, 『한무숙문학의

지평』, 예림기획, 2008. 59-74쪽

이현재, 「인간의 자기 한계 인식과 여성주의적 인정의 윤리」, 『한국여성학』 23, 한국여성학회, 2007, 111-141쪽.

임미진, 「해방기 민주주의 선전과 여성해방-가정잡지 『새살림』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7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7, 355-379쪽.

장영우, 「한무숙소설의 현실의식」, 『한무숙문학의 지평』, 예림기획, 2008, 213-236쪽.

조남현, 「한무숙소설의 갈래와 향심」, 『한무숙문학의 지평』 예림기획, 2008, 11쪽-37쪽.

4. 대담

한무숙, 「나의 문단 40년 회고」, 대담 김옥섭, 『한무숙문학연구』, 을유문화사, 1996. 337-346쪽.

Abstract

A study of earlier novels, the start of Han Moo-sook's spirit of literature

: focusing on the Korean text [A woman who is holding a lamplight] and the adaptation of [The history is going on]

Seo, Jung-ja

The reason why we have paid attention to the works of starting writer's literary career is it has contained the original form of the writer's literary world. The Korean text [A woman who is holding a lamplight, 등잔불 드는 여인] which has been found in this moment was written based on the Japanese text 『灯を持つ女』 which was written six years earlier than [The history is going on, 역사는 흐른다], so that we thought it has various meanings. Even if it seemed unfinished work, it was published serially five times, and in the future the Japanese text 『灯を持つ女』 will be translated, so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text [A woman who is holding a lamplight] will be extended and complemented, if so, it will make Han Moo-sook's literary world rich.

The married life in the home of the husband's parents in which Han Moo-sook suffered hardship, which was a weak constitution, was the motive of her first novel [A woman who is holding a lamplight], so that the novel has contained a critical mind when we couldn't forget talking about her spirit of literature. The married life in the home of the husband's parents that she experienced was illustrated vividly in her work like the married life of the Joseon

Dynasty, even though the novel was actually a modern work. Was that the reason? Han Moo-sook's works were composed of containing the story of three vertical generations from the 19th century.

[A woman who is holding a lamplight] was placed second in the prize contest for full-length novel that was held by [Sinseadea] in 1942, and the Japanese text was a masterpiece that was total 840pages on squared manuscript paper for 200 characters. In field of Korean literature that showed usually short story, it was rare to start one's literary career with full-length novel. Even if it was printed 18years ago, this Japanese text has not been translated; therefore, it did not interest the researchers.

As the Korean text was found, we could compare approximately. And it was the work in 5 series, so that it was possible to discuss about it like the work. There were a lot of motives in the Korean text [A woman who is holding a lamplight]; for reason of married life in home of husband's parents, of keeping a mistress of her husband, of wife's suicide, of a person engaged in a social movement and of narratives of wives. This article has focused on the married life in home of husband's parents. During the writer's married life in home of her husband, the image of her husband's mother that was stamped on the writer's memory was the power to grow her spirit of literature of approval and tolerance, not the absolute conservation, recognizing deeply that the image of cold-blooded mother of husband would be violence, if the ethical rules were not changed over time.

We verified it when we reviewed the adaptation of [The history is going on], namely, in the novel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he

pastor, Song Chang-kyu and the principal, Park Ok-ryun for worship at the Japanese shrine, and when they discussed about it, they showed compromise and tolerance in their attitude. We think it showed the writer's spirit of literature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the apostasy of Dasan, Jeong Yahg-yong, and it is a feature of Han Moo-sook's spirit of literature that the ethical violence was a key for her work, which the mother of her husband did her.

Key words : the Korean text, [A woman who is holding a lamplight]. the adaption of [The history is going on]. For reason of married life in home of husband's parents, violence of ethical norm. The work of starting Han Moo-sook's literary career. 『灯を持つ女』 . Han Moo-sook's spirit of literature.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